

바닥세인 당귀, 백지, 방풍 재배면적 감소 예상

약보합세 행진 속 물동량 귀한 맥문동 상보합세

갈수록 더해 가는 경기부진 여파로 한약시장은 불황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햇것 출하를 앞두고 물동량이 다소 부족한 맥문동을 중심으로 식길경, 천화분, 상백피, 차전초 등 일부 약재를 제외하고는 국산한 약재 시세가 전반적인 약보합세 경향을 띠고 있다. 매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난해 생산량이 많았던 당귀, 백지, 방풍은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 재고량이 많은 이를 품목의 물 재배면적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5월경부터는 다소 시세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약시장의 성수기라 할 수 있는 3,4월이면 겨우내 한산했던 약전골목들도 다소 분주해질 만한데.. 갈수록 더 해 가는 불황에 느는 것은 한약시장 상인들과 생산농민들의 한숨뿐이다. 올봄 장사시즌도 이제 물건 너간 지금, 경기회생의 기대를 걸어 봄 직한 가을시즌 까지 당분간 국산약재 약보합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구기자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구기자 균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청양산이 1만원~1만3천원, 진도산은 1만6천5백원 선이다. 거래부진으로 매기가 워낙 없어 산지에서도 균당 1만2천5백원~1만3천원에 구입한 상품 물량을 1만1천원 선에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청양산지에서 거래되는 중품 구기자 시세는 균당 8천~9천원, 그보다 질이 떨어지는 하품은 균당 6천원 선이다.

당귀 지난해 생산량 증가와 넘쳐나는 재고량으로 3월말 현재 국산 당귀 시세는 최악의 바닥세를 형성하고 있다. 토당귀 통자가 균당(6백g 기준) 1천8백원 선에, 절품은 2천9백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으며 일당귀는 통자로 1천5백원 선이다. 3월21일 대구도매시장에서는 토당귀 절품이 균당 2천7백50원에 낙찰되기도, 생산원가 이하의 시세폭락 영향으로 산지에서는 올 당귀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관측

과 함께 올 가을 수확량 감소를 의식한 장사꾼들에 의해 당귀 물동량이 어느 정도 움직여질 5월경 쯤 어쩌면 당귀값이 다소 회복세 보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두총 오는 5월중 햇것 출하가 이어질 두총 시세는 보합세.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두총 시세는 상품이 균당(6백g 기준) 3천3백원, 중품이 2천7백원, 하품은 2천원 선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보합세 전망.

맥문동 대맥이나 중맥 물량이 귀하다. 이 달 중순경부터 햇것 출하를 앞두고 있는 밀양산 맥문동 균당(6백g 기준) 시세는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1만1천원(상품), 9천원(중품)으로 보합세. 평소 밀양산에 비해 다소 낮은 시세를 형성하던 청양산도 물량이 없어 시세 형성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상황. 청양산 대맥은 1만원에도 물량이 없고 중품 거심맥은 균당 8천5백원~9천원 선에

경동약령시

중국약재 시장동향

국내 한약시장 경기부진 여파로 한동안 약보합세를 면치 못했던 중국 약재 시세가 품목에 따라서는 최근 다소 오름세 보이고 있다. 천마, 당귀, 창출, 복령, 현호색, 길경, 맥문동 등이 대표적인 경우.

천마 생산량 증가

O...kg당 30~25\$ 선이던 천마시세가 지난해 가을 생산량 증가로 시세가 폭락하기 시작, 4.5\$선까지 곧 두박질 쳤다가 최근 들어 6.5\$선으로 다소 오름세 보이고 있다. 유통량의 95% 이상이 재배산인데 워낙 고가약재이다 보니 중국에서도 지난해부터 재배량이 증가한 탓이다.

연호색 수직상승

O...지난해 kg당 2.5\$선이던 당귀는 지난해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시세가 다소 오른 3월말 현재 안국약재시장에서 5\$선에 거래되고 있다. 통당귀는 1.2\$선, 지난해 0.6\$선이던 창출도 생산량 부족으로 다소 오른 0.8~0.9\$ 시세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해 1.2\$ 선이던 복령은 3월말

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산지에서의 시세는 대맥이 1만원, 중맥은 7천5백~8천원, 막맥은 균당 5천5백~6천원 선이다. 청양산 햇것 물량은 오는 5월경에나 출하될 예정.

산수유 균당(6백g 기준) 5천원~1만원 선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경북도 의성과 경기도 양평에서 생산되는 산수유는 기계치(기계를 이용해 씨를 발라냄)가 대부분인데 직접 손으로 씨를 발라내는 구례산에 비해 육이 적고 알이 잘아 균당 시세도 5천원 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 구례산 상품은 균당 1만원 선, 중품은 균당 7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오가피 TV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효과로 한참 불을 이뤘던 오가피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시세도 다소 내림세.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균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원오가피가 2만5천원, 시중에서 '가오가피'라고도 하는 '막오가피'가 균당 3천5백원 선으

로 지난 1월초 5천원 시세 보다 크게 떨어졌다.

천궁 일천궁에 비해 생

천궁 산량과 소비량이 많지 않은 토천궁 시세는 지금까지 상품이 균당(6백g 기준) 1만3천원 대로 대체적 상한가를 형성하고 있었던 품목. 그러나 최근 3월 21일 대구도매시장에서 중품이 8천5백원 선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동약령시장에서 짹으로 거래되는 토천궁 균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상품기준 1만5백원 선이다.

한편 지난해 생산량 증가로 아직 재고 물량이 많은 일천궁은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균당 3천3백원 선으로 약보합세 이루고 있다. 3월21일 대구도매시장에서는 균당 3천원에 낙찰.

천마 그동안 평균시세로

천마 균당(6백g 기준) 2만5천원에서 3만원 선까지 고가에 거래되던 천마 시세가 최근 들어 하락세 보이고 있다.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거래되는 균당 도매시세는 2만8천원 선. 최근 대구도매시장에서도

평소 2만4천~2만5천원 대를 형성하던 토천마가 균당 2만원대로 떨어진 시세에 거래 이뤄졌다고. 국내 재배된 천마 중에는 금년 봄 수확될 물량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햇것 출하가 시작되면서 천마 시세는 지금보다 더 빠질 것 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중국산 천마 시세도 6천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

치자 수입개방으로 수급 조절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국내 재배면적도 급격히 감소한 치자는 그러나 중국산 치자가 국산 토자와 확연히 구별되는 까닭으로 시세는 갈수록 상보합세 경향을 띠고 있다. 지난 1월초만 해도 균당 4천원 선이던 국산 치자는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균당 5천원 시세에 도매거래 되고 있다. 대구도매시장에서는 최근 균당 4천6백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하수오 지난해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급격히 증가한 백하수오는 그래서 시세도 다소 약보합세 경향. 3월말 현재 경동약령시장에서 거래되는 균당(6백g 기준) 도매시세는 백하수오 상품이 지난 1월초 시세인 균당 6천5백원 보다 다소 하락한 5천5백원, 중품도 1천원 폭으로 하락한 3천5백원 선에 도매 거래되고 있다.

〈문정희〉

가 3월말 현재는 2.1\$ 선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는 것. 올 작황이 그리 좋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때문이란 분석이다. 지난해 1.2~1.3\$ 선에 거래되던 당삼은 지난해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 3월말 현재 1.6~1.9\$ 선으로 오름세다.

길경값 상승세

O...지난해 가을 kg당 1.25~1.4\$ 선을 형성하던 길경 값이 지난해 월드컵 이후 생겼으로 다량 한국 수출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 3월말 현재는 1.7~1.85\$ 선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편길경은 수량이 많은 관계로 1.25~1.4\$ 선으로 보합세다.

패모 원지 황련 고가

O...중국에서 생산되는 약재 중 비교적 상보합세를 형성하고 있는 대표적 품목으로는 패모, 원지, 황련 등이다. 패모는 kg당 19.50\$, 원지는 4~10\$, 황련은 16.17\$ 선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것. 따라서 이를 고가 약재들의 국내 생산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